

OPEC의 향후 석유시장전망

이 글은 "OPEC Bulletin '93, 1월호"에서 OPEC (석유수출국기구) 사무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향후 석유시장에 대하여 전망한 것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석유와 가스의 수급 및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정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석유시장이 안정기조에 있더라도 항상 예기치 않은 사태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세계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석유수요가 침체될 때 더욱 그렇다.

OPEC는 그동안 국제석유가격 및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지난 11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OPEC 총회에서는 1993년 석유수급을 전망하면서 회원국간에 세계의 석유시장안정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다짐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단기 석유시장을 재고량 증가 및 석유가격 하락으로 요약하여 전망하였다. OPEC회원국(에콰도르 제외)들은 1993년 1/4분기동안 석유생산량은 하루 2,460만배럴의 상한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1993년 세계경제성장율이 1.5-2.2% 증가할 것을 전제로 세계석유수요는 '92년의 하루 6,480만배럴에서 6,535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非OPEC의 1993년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재고량은 전년에 비해 하루 120만배럴 적은 2,490만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초 세계경제성장률 낙관적으로 기대하여 1993년 석유수요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겼으나 아직까지 수요증가율은 80년대 후반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93년 총석유소비 증가율은 80년대 후반 수준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1993년도 석유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활동 불확실성, 특히 미국의 신정부출범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 CIS의 석유공급 불확실성 및 북해의 생산증대 가능성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 세계석유재고량의 변동.

특히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CIS의 석유생산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CIS는 석유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석유수출을 증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내석유수요를 불가피하게 줄여야만 하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CIS가 국내석유수요를 줄일 것이냐,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것이냐에 따라 세계석유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1/4분기 뿐아니라 그후에도 특별히 시장변동요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예기치 않은 사태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석유수급상황은 아니더라도 단기 및 중장기 석유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은 예상하여야 한다.

이라크의 석유시장 재참여와 그에 따른 OPEC의 생산쿼터조정, 각국의 석유세제, 개도국 및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환경문제 등이다.

또한 지난 11월의 OPEC회의에서는 석유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OPEC와 非OPEC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OPEC은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꾸준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석유시장의 안정화와 소비자의 안정적 공급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는 OPEC의 창설된 30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이 원칙은 인플레이와 환율변동에 의한 석유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켜져 왔다.

특히 환율문제는 몇달 전에도 문제가 되었었다. 美달러와 연관된 석유가격이 美달러가치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美달러의 가치변동은 석유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3~8월 중에는 OPEC바스켓원유가격이

배럴당 46센트 상승하였으나 실질가격은 환율과 인플레이로 인해 배럴당 53센트가 하락된 효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배럴당 1달러차이인 5% 정도 수익이 감소하게 되었다.

OPEC의 바스켓원유의 평균가격은 전년 1~9월 동안 배럴당 18.35달러였다. 이는 OPEC 기준인 배럴당 21달러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배럴당 21달러의 기준가격은 1980년에 합의된 것으로 이 기준가격을 실질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현재 배럴당 25달러가 되어야 한다. 인플레이효과를 장기간 감안한다면 1974년 실질가격 수준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OPEC는 석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현가격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가격의 급상승을 원치않고 있다. OPEC회원국들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최소한의 실질소득을 원하고 있다. 시장의 안정화란 석유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화를 의미하며 석유수요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성장은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단·중기의 석유수요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적으로 석유시장은 세계경제활동의 부진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석유의 공급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OPEC는 안정된 석유시장과 완만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995년까지 석유의 공급과 수요는 하루 400만배럴 증가한 2,80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OPEC은 90%의 가동율을 전제했을 때 1995년까지 하루 3,200만배럴의 생산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정된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선 생산시설을 증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로 유전개발을 위해 투자를 유인해야만 한다. 자금조달은 OPEC자체에서뿐 아니라 해외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투자는 안정된 수요기반 속에서 자본회수율이 높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세 부과등 환경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OPEC는 탄소세와 같은 부적절한 규제를 원치 않고 있으며 탄소세 부과는 석탄으로의 대체 가능성증대로 인해 대기오염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으며, 탄소세 부과는 유가인상과 직결되어 세계경제성장을 위축시킬 뿐이며 정부의 수입만 증대시킬 따름이다.

그리고 탄소세 부과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서 거론되었기 보다는 영국의 석탄산업보호라는 정치적차원에서 대두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보호정책 및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으로 OPEC의 석유수요 및 가격수준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계의 확인매장량은 현재 1조배럴로서 OPEC의 점유율은 77%에 이르고 있다. 가채연수는 OPEC이 90년 이상이며 非OPEC은 16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배럴당 생산비용은 OPEC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중동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투자여건도 OPEC지역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유리하여 투자회수율도 매우 높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규모, 기술수준, 정치안정도, 공정한 지분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며 산유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여 상호관계가 밀착되기를 원한다. 이를 고려할 때 OPEC지역의 석유개발사업은 대

부분 성공율이 높고 단기 회수율이 높으며, 투자의 위험도가 낮다. 따라서 OPEC은 투자유망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지속적인 석유수요증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석유는 앞으로도 에너지시장에서 단일 상품으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2010년까지 2.5~3.0%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인구는 1990년의 53억에서 2020년에는 80억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증가율은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서 두드러 질 것이다. 그리고 석유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있더라도 향후 30년간은 세계에너지 자원 중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비록 시장점유율이 감소할지라도 소비증가율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석유소비증가율은 두드러져 2020년까지는 지금보다 2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점유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기존에너지원에 비할 바는 아니다. 특히 원자력, 가스같은 기존에너지의 소비량은 앞으로도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에너지소비는 단기·중장기에 걸쳐 경제성장의 부진, 환경보호강화 에너지 효율 증대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

〈金柱憲 磊김〉

■ 신간 ■

1992년판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